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이*찬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an Marcos
파견대학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Marcos.	파견기간	2014년 8월 21일~ 2015년 5월 16일.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샌디에고에서 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 규모는 순천향대학교 보다 작으며 아담하고 알찬 느낌이 드는 캠퍼스 입니다. 전반적으로 건물들은 신축 건물들이 많으며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캠퍼스 전체를 돌아 보는데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2014-2학기 수업	첫 번째 학기에는 합창 수업과 힙합댄스 커뮤니케이션 100, psychology 100, Personal health 200 과목을 들었습니다. 합창 수업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동안 합창 곡들을 연습해서 학기 끝나기 전에 발표회를 여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 됩니다. 과제는 없으며 수업 준비도 따로 없습니다. 교재도 없으니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힙합댄스 과목은 수업 내내 춤만 춥니다. 중간, 기말기사 기간 동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습해서 조별로 실기 시험을 보고 간단한 필기 시험도 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생각 보다 요구하는 과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심리학 수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3시간 중에 1시간은 그룹별로 강의실에 모여 2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조교들과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과제도 많았고 따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 100치고는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과목은 100이라고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했지만 가장 까다로웠던 전공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100이라고 모든 수업이 다 쉽지는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재도 한국말로 이해하기에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수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수업을 진행 하는 교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건강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내용이라서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았고 수업이나 과제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추천합니다.

2015-1학기 수업	<p>피아노수업과 Youth and Society300, Family & intimate relationship 300, and abnormal psychology 300를 수강했습니다. 피아노 수업은 제가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어서 들었는데 교수님도 친절하시고 중간, 기말고사를 연주회를 열어 평가를 봅니다. 추천합니다. Family 수업은 300이라 확실히 난이도가 있고 수업을 토론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중간고사를 따로 보지 않으며 학기말에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가족 인터뷰를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Youth 과목은 알아 듣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학기말 고사에 배점이 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두 가지 형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한가지는 어느 청소년 기관에서 실습을 20시간 이상 채운 뒤에 형식에 맞게 제출하거나 실습하기 싫은 학생들은 더 어려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출 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상심리학은 제가 한국에서 듣고 갔던 수업이라 조금만 연습하면 알아듣기 쉬웠고 과제도 많지 않아 추천하는 과목입니다.</p>
프로그램 운영	<p>학기 초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생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또한 2달에 한 번 간격으로 coffee hour가 있어서 친구들을 사귀기에 좋습니다. 학기 초반에 mentoring 프로그램도 있어 지원하면 미국인 학생과 짝을 맺어주어 어울릴 수 있게도 도와줍니다. 순천향대학교처럼 여기도 global office를 운영하는데 이곳에 자주 들려서 친구들을 사귀면 학교생활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는 항상 맑습니다. 제가 있는 10개월 동안 비가 온 날을 생각 하면 20일도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심해 긴 옷 등은 챙기시는 게 좋고 두꺼운 바람막이 옷 한 번 정도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p>

안전	San Marco 지역 자체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학기 중에 가끔 성폭력 사건이 기숙사에서 발생하니 특히 여성 분들은 문단속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숙소	저는 UVA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숙소 시설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살만은 합니다. 2인실을 쓰게 되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룸메이트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만약 이 부분에서 예민하신 분들은 개인 룸은 사용 하는 걸 추천 합니다. QUAD 기숙사는 신축 기숙사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UVA는 없는 음식물을 처리해주는 Disposal가 없으니 따로 모아서 버려야 되는 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QUAD기숙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UVA가 학교와 더 가깝기 때문에 10분 정도 QUAD 사는 학생보다 등교할 때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점을 무시하시면 안됩니다.ㅎㅎ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Meal Plan 있으나 좋지 않습니다. 저도 학기 초반에 몇 모르고 400불 끊었다고 다 쓰느라 고생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학교 내에서는 모든 게 비쌉니다.!!!비추!!! - 학교식당 개별이용 없습니다. 이 점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 홈스테이 : 있음 - 외부식당 : 있음, 학교에서 멀고 먹을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 직접 요리 : 기숙사 내에서 요리가 가능합니다.
교통	<p>기숙사가 학교 앞에 있어 걸어서 5분이었습니다., 시내교통은 스프링턴이라는 지상철이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인 ocean side 까지 운행됩니다. Ocean side에서 샌디에고도 가고 LA도 갈 수 있습니다.,</p> <p>캘리포니아에서 우리 학교 지역은 특히 교통이 좋지 않아 차가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다행히 같이 교환학생 온 친구가 렌트를 해서 많이 얻어 타고 미국인 친구들이 도와 줘서 한결 수월하게 생활했습니다.</p> <p>차가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0만원 (파견 전에 도착 하는 날짜가 나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편도로 끊는게 저렴하고 좋습니다. 제 친구는 편도로 끊어 돌아 갈 때 6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Fees		
보험료		
숙소	UVA기숙사비는한학기에 \$3500입니다. 비쌉니다. 더불어 한 번 \$550 활동비를 내야 되고 계약을 할 때 2학기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DEPOTI \$2100을 맡겨야 합니다. 이는 나갈 때 되돌려줍니다.	
식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천차만 별입니다.	
교통비	여행을 제외하면 들지 않습니다.	
책값	80달러 내외 (중고책 샀습니다.)	
기타1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 준비사항은 영어공부 열심히 하고 가세요. 가서 영어공부 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 얻어서 돌아옵니다. 따라서 가기전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가서는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행 하고 싶은 곳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이라는 경험은 제가 1학년 때부터 꿈꿔 왔던 것이었고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어느 정도 견디고 즐길줄도 알아야합니다. 영어에서 오는 힘든 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활 부분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게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생각하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호텔 쪽에서 일하고 싶어서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배운 걸 바탕으로 취업을 준비 해볼 생각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미국 교회 할로윈데이 행사.</p>	<p>샌디에고 가서 투어</p>
	
<p>합창 수업 발표회를 마치고 교수님과</p>	<p>샌프란시스코 금문교</p>



뉴욕 타임스퀘어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